

“도내 협력업체 자금난 해소 도움 될 것”

NH농협은행 전북본부 - 전북도, 한국GM군산공장·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200억원 긴급자금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한국GM군산공장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자동 중단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한국GM·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대해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며, 대표자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사업자로서 기업평가등급이 'CC' 이상인 한국GM·현대중공업 협력 업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2% 고정금

리다. 또한 기업운영 필수경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H농협은행 김장근 본부장은 “이번

대출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협 - 고추전북협의회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고추전북협의회(회장 김학운)는 3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북관내 고추 주산지 농협 조합장 17명으로 구성된 고추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했다. 총회에서는 전북 고추 판매확대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관측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고추 채소가격안정제와 전북도 최저가격보장제'를 통한 유통개선과 회원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추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원들은 고추 계약재배 사업불량을 확대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하며, 수급 불안정시 수매비축, 출하조정 등 단계별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하기로 했

다. 아울러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재배기술 및 세척 건조 등 재배 농가의 생산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캠페인 등을 실시,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학운 회장(오수관촌 조합장)은 “고추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회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고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재도 본부장은 “방동고추 등 수입 농산물 급증,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가격안정제와, 채소수급안정사업 추진, 소비촉진행사, 농성활동 등 국내산 고추산업 지지가 되자.”고 강조했다. /최수호 기자

‘우체국 포미 체크카드 출시’

우정청, 1인 가구 특화 사용금액 10% 현금 캐시백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싱글족 등 1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업종의 할인혜택을 강화한 ‘우체국 포미(For Me)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체크카드는 편의점, 배달앱, 인터넷쇼핑, 대형마트에서 결제하면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또한 각 업종별로 2회까지만 해당되며,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2만 원이다.

아울러 간편결제로 사용해도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5만원 이상 통신회료 자동납부는 3천원을 캐시백해 준다.

편의점은 GS25와 CU에서,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에서, 인터넷쇼핑은 G마켓, 11번가, 쿠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

플러스에서 쓰면되고, 간편결제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면 된다.

우체국 포미(For Me) 체크카드는 최대 30만원까지 소액 신용결제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이 용실적과 부가서비스를 쟁길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생활도 도와준다.

신규 카드 출시에 맞춰 4월2일부터 5월 말까지 스타벅스 커피쿠폰과 백화점 상품권, 인공지능 스피커, 최신형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우체국 포미(For Me) 체크카드의 혜택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수호 기자

NH농협전북본부, 올바른 포인트 카드 출시

NH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전 가맹점에서 적립한도 제한 없이 채움 포인트가 적립되는 ‘올바른 포인트 카드’를 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 1종, 체크카드 1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어디서나 조건 없이 쉽게 높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어야 올바른 카드생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시 국내 및 해외가맹점 어디서나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기본 0.7%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특히 농협 우수 고객인 하나로 고객은 전월 실적에 따라 0.1~0.3% 채움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여기에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쇼핑(하나로마트·클럽, 농협몰), 편의점·잡화(GS25, CU, 올리브영), 영화(CGV), 커피·제과(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및 해외 이용액(면세점 포함)

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국제공항 라운지(인천·김포·김해)를 연 2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 수수료를 통합 10회 면제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바른포인트 체크카드’는 전 가맹점 기본 0.2%에 전월실적에 따라 최대 0.7%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신용카드와 같이 하나로 고객 및 생활 밀착형 가맹점에서는 추가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국제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연 1회)과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월 5회)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발급은 전국 NH농협 영업점 및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조건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호 기자



“금융 편의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전은, 원광대 영업점 개점식... 등록금 수납 등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3일 원광대 영업점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내에 위치한 원광대 영업점은 올해 전북은행이 10년 만에 원광 대학교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이번 개점으로 전북은행 원광대 영업점에서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주고객인 만큼 대학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대학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등록금 수납, JB스마트 앱 통합 및 원광대 스마트 학생증 체크 마스터

카드 시스템 운영, 전반적인 금융업무 지원 등이 있다.

개점 행사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내, 외부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전북은행 원광대 영업점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구성원들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광 대학교와 전북은행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유덕근 고창농협 조합장, 자랑스러운 조합장상 수상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2일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이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유덕근 조합장은 3선으로 탈환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경제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농교류를 통한 상생활동은 물론 소외된 농촌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매진하는 등 모범이

되는 사업추진으로 타 농협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 조합장은 “따뜻한 봄을 느끼는 4월에 중앙본부에서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조합장상’ 수상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실익지원 사업으로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은 전국 1,130여개 조합 중에서 매월 2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5,000만원 농가소득증대, 농협균형발전, 농협이 넘가치 확산, 사업추진 실적 우수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합장에 수여한다. /최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차단 방역 집중 소독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는 4월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집중소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일제소독 대상은 전국 모든 소·돼지·염소 등 우재류(발굽이 돌로 갈라진 동물) 축산 농장과 축산시설·장비·차량이다. 방역 취약 지역도 4일 하루 동안 집중 소독하게 된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전국 75개 도축장과 66개 집유장에 소독전담관 186명을 배치해 세척·소독을 지도한다.

농식품부는 또 일제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각시·도주관의 지자체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